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외국인, 주식 · 채권투자 매수세 확대

□ 최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, 외국인이 주식 및 채권 관련 투자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금년 10월 말까지 외국인은 국내 상장주식 및 채권에 각각 17조 2,905억원, 21조 1,370억원에 투자해 총 38조 4,275억원을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됨.
- 외국인은 9월 기준 3조 7,209억원을 순매수한데 이어 10월에도 5조 1,151억원을 순매수하는 등 대규모 순매수를 이어갔으며, 채권투자의 경우 9월에는 1,184억원을 순유출했으나 10월에는 4조 3,357억원을 순매수함.

외국인 상장증권 순투자액 및 보유 현황(결제기준)

구 분	상장증권 순투자 금액				보유잔고(억원)
	2010년 1~8월	9월	10월	금년 누계	
주식	84,545	37,209	51,151	172,905	3,405,570(29.8%)
채권	169,197	-1,184	43,357	211,370	790,236(7.1%)
합계	253,742	36,025	94,508	384,275	4,195,806

자료 : 금융감독원

□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 투자 확대는 미국의 양적완화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양호한 금융시장 여건, 기업들의 실적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.

- 전문가들은 국내금리의 하락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양호한 국내 금융시장 여건, 기업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 최근 외국인의 투자 매수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.
- 국가별로(10월 중)는 미국이 1조 6,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, 이어 독일 9,574억원, 중국 4,380억원 순이었으며, 반면 태국과 일본은 각각 1,399억원, 141억원 순매도함.
- 한편, 외국인은 전체 시가총액의 29.8%에 해당하는 340조 5,570억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, 채권은 79조 236억원으로 전체 상장채권의 7.1%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(2010. 10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, 금감원, 11/3)